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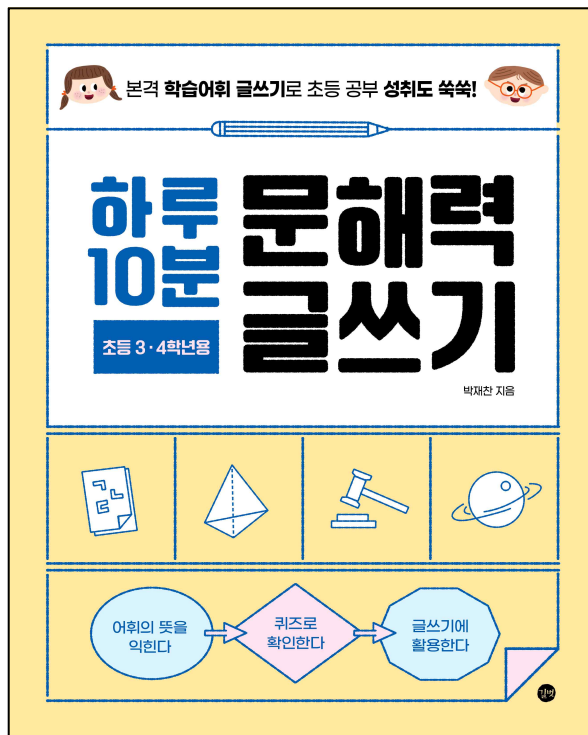


독자의 1초를 아껴주는 정성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56 대표전화 (02)332-0931 팩스 (02)338-0388 홈페이지 www.gilbut.co.kr
담당자 최준란 02-330-9830 chran71@gilbut.co.kr

어려워지는 학습 내용에 대비하는 하루 10분 공부 습관

“매일 10분씩 60일이면 공부 성취도가 쑥쑥 올라간다!”



하루 10분 문해력 글쓰기

초등 3·4학년용

글쓴이 | 박재찬

발행일 | 2022.12.10 분 야 | 어린이(초등)>책읽기/글쓰기 판 형 | 225*280 형 태 | 무선제본
페이지 | 154쪽 정 가 | 14,000원 ISBN | 979-11-407-0230-5 73710

공부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3~4학년. 이 시기의 학습 습관이
대입 성적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3~4학년은 학습어휘라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본기가 단단하면 문해력은 따라옵니다.
하루 10분씩 60일만 이 책과 함께 해보세요.

학습의 결정적 시기 3~4학년, 문해력이 튼튼하면 학습 성취도가 올라갑니다!

■ 책 소개

요즘 전 세대에 걸쳐 문해력이 화제다. ‘문해력이 독해력 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독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만 뜻하지만,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글을 사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OECD의 정의). 이러한 문해력은 학습의 기본기가 될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할 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문해력의 관건은 어휘력이다. 어휘력의 차이는 이해 수준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해 수준의 차이는 학습 한계의 차이로 이어져 중고등학교 때의 학습 수준의 차이를 만든다. 초등학교 3~4학년 때까지는 어휘력이 조금 부족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교과서나 수업 자료에 나오는 어휘 수가 그리 많지 않고 수준도 높지 않아서 이리저리 하다 보면 버텨낼 순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5~6학년이 되면 어휘력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학습 격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어휘를 많이 아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이해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수준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벌어져 학습의 한계를 만든다. 이러한 일을 막고 싶다면 초등학교 때 어휘를 차곡차곡 익혀나가야 한다. 어휘 중에서도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어휘’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 시기가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골든아워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에 등장하는 학습어휘들을 익히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문해력을 길러주는 워크북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어휘들은 초등학교 3~4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분석한 뒤에 교과별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요소들을 추출하는 식으로 선정했다. 어휘 사용의 예시문을 보고, 어휘의 뜻을 익히고, 제대로 익혔는지 체크하고, 배운 어휘를 활용한 짧은 글쓰기까지 한 뒤에, 한 단계 심화된 어휘들까지 살펴보기 때문에 문해력을 기르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매일 10분씩 60일에 불과하다. 아이의 어휘력 발달 정도에 따라 하루에 20분씩 30일로 학습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하루 10분은 집중력이 약한 아이도 부담 없이 학습어휘들을 익히고 활용(글쓰기)할 수 있는 시간이다. 매일 10분씩 60일만 하면 처음 접하는 학습어휘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초등 공부를 즐겁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출판사 리뷰

이 책의 특징

- 10분이면 OK : 10분은 누구나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 집중력이 약한 아이도 지루하지 않게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책은 10분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어휘를 익히고 활용하는 것까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필수 학습어휘를 60일간 매일 차곡차곡 익히는 워크북** : 문해력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지양하고, 문해력 향상을 돕는 워크시트를 60일 분량으로 구성했다. 매일 10분씩 60일이면 초등 3~4학년 필수 학습어휘를 마스터할 수 있다.
- **과목별, 주제별 어휘 구성** : 문해력은 국어 학습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 과목 공부에 필요한 능력이다. 그런 점에서 주요 과목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와 학습어휘들을 주제별로 구성해 매일 한 가지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을 익히도록 했다.
- **교과별 성취기준에 맞춘 어휘 선정** :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교과서이고, 교과서의 근본이 되는 것이 성취기준이다. 이 책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성취기준에 맞는 학습어휘들을 선정하고 다음 학년의 학습을 대비하는 심화 학습어휘까지 설명하고 있어 선행학습의 효과도 볼 수 있다.

이 책의 내용과 구성

- **준비 마당_ 문해력 이해하기**: 문해력이 무엇인지, 어휘력이 문해력을 높이는 데 있어 왜 중요한지, 초등 시절에 문해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초등 3~4학년이 왜 중요한지, 학습어휘를 익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 **첫째 마당_ 국어 교과에서 문해력 다지기**: 초등 3~4학년 국어 교과에 나오는 학습어휘를 익히고, 그 어휘를 활용한 짧은 글쓰기 연습을 한다. (12가지 주제 / 12일분)
- **둘째 마당_ 수학 교과에서 문해력 다지기**: 초등 3~4학년 수학 교과에 나오는 학습어휘를 익히고, 그 어휘를 활용한 짧은 글쓰기 연습을 한다. (16가지 주제 / 16일분)
- **셋째 마당_ 사회 교과에서 문해력 다지기**: 초등 3~4학년 사회 교과에 나오는 학습어휘를 익히고, 그 어휘를 활용한 짧은 글쓰기 연습을 한다. (16가지 주제 / 16일분)
- **넷째 마당_ 과학 교과에서 문해력 다지기**: 초등 3~4학년 과학 교과에 나오는 학습어휘를 익히고, 그 어휘를 활용한 짧은 글쓰기 연습을 한다. (16가지 주제 / 16일분)

저자 소개

박재찬

초등학생들의 글쓰기 지도법을 연구하는 초등글쓰기연구소의 대표이자 초등학생들과 매일 아침 글쓰기를 하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하였으며,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글쓰기 지도법 강의를 하고 있다. 학생들의 문해력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교육과정 운영 분야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글쓰기 머리가 공부 머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글쓰기 지도법을 수년간 연구하는 과정에서 펴낸 《하루 10분 문해력 글쓰기》, 《하루 한 장 초등 글쓰기 시리즈》, 《초등 글쓰기 무작정 따라하기: 자유 생각편 시리즈》, 《하루 한 장 초등 교과서 글쓰기》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베스트셀러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네이버 카페 : 초등글쓰기연구소 <https://cafe.naver.com/writinglab6>

네이버 블로그 : 달리플래닛 <https://blog.naver.com/chance31>

■ 책 속으로

초등학교 3~4학년 시기에 학습어휘를 제대로 익혀 두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5~6학년이 되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혼자서 공부하기 위해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정작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별 핵심 어휘들은 이전 학년, 다음 학년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4학년에서 배우는 ‘회소성’, ‘생산’, ‘소비’, ‘시장’과 같은 어휘들은 5~6학년에서 배우게 될 ‘가계’, ‘기업’, ‘합리적 선택’, ‘자유경쟁’과 같은 어휘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5~6학년에서는 3~4학년에서 언급되었던 학습어휘들을 다시 다루진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4학년에서 꼭 배워야 하는 어휘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5~6학년에서 배우는 어휘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p.13, ‘초등학교 3~4학년은 학습의 결정적 시기’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어른이 될 2040년, 2050년에는 직장이라는 개념이 지금과는 매우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각 경제(Gig Economy. 시장의 요구, 필요에 따라 임시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제 형태)가 더 활성화되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겠죠. 하나의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 직업 저 직업, 이 직장 저직장을 바쁘게 옮겨 다니는 게 평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문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려면 모종의 지식이나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문해력이 있어야만 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해력이 있어야 어떤 직업을 갖든 어느 직장에 가든 적응을 잘하고, 다른 업무, 다른 직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 p.16, ‘초등학교 때 문해력을 길러야 하는 이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초등학교 3~4학년에서 나오는 어휘들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6학년과 비교하면 교과서나 수업 자료에 나오는 어휘의 수가 그리 많지 않고 수준도 높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을 아시죠? 초등학교 3~4학년 시기에 호미로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p.18, ‘어휘의 한계는 학습의 한계’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학습어휘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추출했습니다.

-1단계 : 초등학교 3~4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2단계 : 교과별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요소 추출

-3단계 : 내용 요소 중 3~4학년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혼동하는 어휘 추출

-4단계 : 3~4학년 학습어휘와 연결되는 5~6학년 학습어휘, 3~4학년 학습어휘와 연결하여 배우면 좋은 학습어휘 및 3~4학년 수준을 넘어가는 어려운 어휘들을 추출한 뒤 ‘심화 학습어휘’로 분류

이 책 속 학습어휘에는 성취기준을 일일이 표기하진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학습어휘를 추출할 때 성취기준을 가장 먼저 고려했습니다. 그러니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학습어휘들을 제대로 익힌다면 교과서 제재글이나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20, ‘이 책 속 학습어휘는 어디서 왔을까?’

그렇다면 학습어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문장을 읽어 보며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어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엔 나의 말이나 글로 표현해 보면서 그 어휘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습어휘로 짧은 글을 써 보는 것은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

인 방법입니다. ‘어렵듯하게’ 알 것 같은 느낌을 ‘확실하게’ 아는 것으로 바꿔 주는 게 어휘 활용 글쓰기
입니다.

- p.21, ‘학습어휘를 효과적으로 익히는 방법’

■ 차례

머리말

학습 계획표

준비 마당_ 문해력 이해하기

“선생님 ○○이 무슨 말이에요?”

초등학교 3~4학년은 학습의 결정적 시기

문해력이란 무엇일까?

초등학교 때 문해력을 길러야 하는 이유

어휘의 한계는 학습의 한계

초등학교 3~4학년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학습어휘 모음

이 책 속 학습어휘는 어디서 왔을까?

학습어휘를 효과적으로 익히는 방법

첫째 마당_ 국어 교과에서 문해력 다지기

01 감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02 문장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

03 문장과 문단은 무엇이 다를까?

04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은 어떻게 구분할까?

05 “엄마! 빨리 밥 줘!”는 올바른 표현일까?

06 요약하며 듣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

07 사실과 의견을 어떻게 구별할까?

08 ‘동’으로 시작하는 세 낱말의 비슷한 점은 무엇일까?

09 친구들과 생각을 모으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10 이렇게 제안하는 건 어떨까?

11 이야기를 만드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

12 독서 감상문은 어떻게 써야 할까?

둘째 마당_ 수학 교과에서 문해력 다지기

01 선분과 직선은 무엇이 다를까?

02 직각은 무슨 말일까?

03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04 길이를 잴 때는 어떤 단위를 사용할까?

05 시각과 시간은 무엇이 다를까?

06 분수는 무엇일까?

07 소수는 무엇일까?

08 원을 알아볼까?

09 이 분수는 뭐라고 부를까?

10 들이와 무게의 단위는 무엇일까?

11 그림그래프와 막대그래프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12 어떤 각도로 그리는 게 좋을까?

- 13 이등변삼각형과 정삼각형은 무엇이 다를까?
- 14 수직과 평행은 무슨 말일까?
- 15 여러 가지 사각형을 살펴볼까?
- 16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꼭짓점을 이은 선을 어떻게 부를까?

셋째 마당_ 사회 교과에서 문해력 다지기

- 01 우리 고장에는 어떤 장소가 있을까?
- 02 우리 고장은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 03 어떤 지도에서 우리 고장을 찾아볼까?
- 04 우리 고장에도 옛이야기가 있을까?
- 05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떤 일을 할까?
- 06 우리 고장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을까?
- 07 교통수단은 어떻게 변했을까?
- 08 옛날에는 어떤 통신수단을 이용했을까?
- 09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
- 10 가족 구성원엔 누가 있을까?
- 11 우리 가족은 핵가족일까? 확대가족일까?
- 12 지도에 숨겨진 약속은 무엇일까?
- 13 내가 사는 곳은 촌락일까? 도시일까?
- 14 생산과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15 저출산, 고령화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 16 편견과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넷째 마당_ 과학 교과에서 문해력 다지기

- 01 물체와 물질은 어떻게 다를까?
- 02 배추흰나비는 어떻게 자랄까?
- 03 배추흰나비는 곤충일까? 동물일까?
- 04 완전탈바꿈과 불완전탈바꿈은 무슨 말일까?
- 05 철을 끌어당기는 물체가 가진 힘은 무엇일까?
- 06 나침반은 어떻게 생겼을까?
- 07 지구와 달의 표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 08 육지와 바다 중 더 넓은 곳은?
- 09 지표, 지형, 지층은 무슨 뜻일까?
- 10 지표를 변하게 만드는 네 가지 원인은 무엇일까?
- 11 강의 상류와 하류는 무엇이 다를까?
- 12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13 섞여 있는 콩과 쌀을 어떻게 분리할까?
- 14 우리 주변에는 어떤 고체, 액체, 기체가 있을까?
- 15 물은 어떻게 모습을 바꿀까?
- 16 화강암과 현무암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휘 찾아보기

이 책에 나온 학습어휘와 주제

참고문헌